

생존 위한 몸집 키우기... 실현 가능성 '글썄'

/ 뉴스 초 점 / 바른미래당·평화당 통합 추진

지역 민심 '싸늘'·의원들 입장도 제각각 ... 진통 클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간의 통합론이 부상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양 당 간의 통합에는 여러가지 난제가 있는데다, 지역 민심은 기대보다는 냉랭한 반응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통합파들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통합을 공론화하고 나선다.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은 8·9일 열리는 연찬회에서 민주평화당과의 통합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과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연찬회에서 진행될 끝장토론이 사실상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오는 12일에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통합파 의원들이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양당의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통합파들은 이날 토론회에 양 당의 지도부들을 대거 참석시킨다는 입장인바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다면 통합론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내년 총선 전까지는 과거 국민의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양 당의 통합은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과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통합을 위해 순순히 자리를 비켜줄 것인지 미지수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및 합당이 추진된다면 바른미래당이라는 정치적 실체와 비례대표 의석은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 결국, 합의이후보다는 서로 "탈당하라"는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른정당 문제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도 변수다. 안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창업주라는 점에서 평화당과의 통합론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당내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안 전 대표가 통합에 반대한다면 실질적으로 당 대 당 통합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의 역할론도 거론되지만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악의 경우,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만 통합을 명분으로 탈당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평화당 내부에서도 통합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통합이 추진된다면 지켜보겠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탈당을 감행,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올 연말까지 무소속 그룹을 형성하며 민주당 입당 추진 등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냉랭한 지역 민심이다. 통합에 대한 기대보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켜 호남 중진들에게 기회를 줬더니 스스로 분열하며 호남 정치를 나락에 빠트렸다는 것이 요지다. 이러한 호남 중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론을 제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호남 중진들이 자기 회생을 통해 통합의 진정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통합을 이룬다고 해도 확실한 대권주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 비전 부재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결국 호남 중진들의 자기 희생과 신선 세력을 중심으로 한 외연 확대 없이는 통합의 동력과 미래 비전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중외공원 홍매화 활짝 7일 광주 북구 중외공원 홍매화 군락지에 붉은 홍매화가 만개했다. 시민들이 활짝 핀 홍매화를 배경삼아 사진을 찍으며 이른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복·수랑·봉산공원 개발 아파트 공급 600세대 줄인다

광주 민간공원 1단계 본격화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대상인 4개 공원 가운데 마복·수랑·봉산공원에 대한 최종 개발안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들 3개 공원의 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을 축소하고 건축물 높이를 하향

조정해 아파트 공급 세대수를 600세대 이상 줄였다. 시는 1단계 사업 대상인 송암공원도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7일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을 수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어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수랑공원(우선협상대상자 오렌지이앤씨)의 경우 아파트 조성 면적을 16.9%, 마복공원(호반베르디움) 23.0%, 봉산공원(제일건설) 22.9% 등으로 각각 최초 제안보다 낮추거나 동결했다. 용도지역은 고층·초고층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최진석



엄홍길



김정운



박정자



전유성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7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7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

공합니다.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

- 모집 인원 : 00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19년 3월~2019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 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8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개별문의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구제역 청정지 전남을 지켜라 ▶6면



아구 계절이 온다...KIA 시즌권 판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 비타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이리파움, 마트, 아모레퍼미닉 매장, 아모레퍼미닉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mall.com · 전화번호: 080-023-5454